

[**영 화**]

할리우드, 실존인물 영화화 작업 한창

영화 보다 더 영화 같은



'축구 황제' 펠레



'철의 여인' 대처

할리우드가 실존 인물들과 사랑에 빠졌다. 영화배우, 운동선수, 정치인 등 다양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는 것.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은 영화로 만들기에 딱 좋은 소재다.

올 2월 39세의 나이로 요절한 여배우 안나 니콜 스미스는 영화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인기 가수 윌라 포드가 주인공을 맡은 '안나 니콜(Anna Nicole)'은 플레이보이와 게스 모델 시절부터 갑작스런 죽음까지 그녀의 영화같은 삶을 화면에 담는다. 26세의 나이로 89세의 억만장자 하워드 마셜 2세와 결혼 해 화제를 모았던 안나는 결혼 후 14개월만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전개된 상속 분쟁,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 등 영화같은 인생을 살았다.

축구영웅 펠레와 마라도나의 삶도 영화로 만들어진다. 현역 선수로 활동시기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오랜 기간 20세기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가라는 점을 놓고 강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수상'을 두 사람에게 공동 수여했다.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전기 영화 '신의 손(Hand of God)'은 5월 개봉을 준비 중이다. '신의 손'은 마라도나가 86 월드컵 잉글랜드전에서 교묘하게 손을 사용한 득점을 성공시켜 생긴 별명이다. '신의 손'은 5월 칸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도 전기 영화 제작을

추진 중이다.

펠레는 이미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이하 WMA)와 계약을 맺었고, 현재 출연 배우와 감독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펠레는 1958년과 1962년, 1970년에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언제나 수많은 영광과 함께 했다.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수상의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진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삶을 그린 '더 퀸'의 제작사인 BBC필름 등이 공동 제작할 이번 프로젝트는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포클랜드 전쟁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여주인공으로는 '더 퀸'에서의 완벽한 연기로 올해 아카데미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헬렌 미렌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암살을 다룬 정치영화 '버비'는 화려한 캐스팅으로 눈길을 끈다. 샤론 스톤, 데미 무어, 린제이 로한, 헤더 그레이엄, 헬렌 헌트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보스턴 출신의 전설적인 권투선수 마이크 워드의 삶 역시 영화로 준비 중이다. 마약과 범죄에 빠져 있던 마이크 워드가 의붓 형제 디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고 결국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디퍼티드'에서 함께 출연했던 마크 월버그와 맷 데이먼이 주역으로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축구 영웅' 마라도나



'섹스 심벌' 니콜 스미스

영화배우·운동선수·정치인 등 다양한 인물 주인공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굿 세퍼드 로버트 드 니로가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냉전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다.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CGV(상무·첨단))
등받이 과외하기 레슨? 한국말을 배우러 온 일본 여성과 한국인 선생의 좌충우돌 코미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이, 프리머스 광주 상무
눈부신 날에 박광수 감독 작품으로 박신양이 주연을 맡은 휴먼 드라마.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이, 프리머스 광주 상무
파란 자전거 장애를 가진 코끼리 사육사 동규를 주인공으로 한 따뜻한 드라마. 전체 관람가.	하이, CGV(상무)
선사인 인류 멸종 위기에 처한 2057년을 배경으로 한 SF물.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하이, 프리머스 광주 상무
로빈슨 가족 디즈니의 가족용 3D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리빙 10개의 재앙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오컬트 미스터리.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콜롬버스(상무), 프리머스 제일
천년학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로 이창준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12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제일, 하이, 프리머스 광주 상무
고스트 라이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액션물.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이, 프리머스 광주 상무
극락도 살인사건 외딴 섬의 마을 주민의 연쇄 죽음을 소재로 한 박해일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물.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이, 프리머스 광주 상무
우이한 세계 송강호 주연의 생활 느와르 '연애의 목적'을 만든 한재림 감독 작품이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제일, 하이, 프리머스 광주 상무
300 만화를 원작으로 한 전쟁 서사극. 18세 관람가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하이,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엔터

영화계는 지금

광주극장 내달 3일까지 연장상영

훗카이도 재일 조선학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우리학교'가 잔잔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월 29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한 '우리학교'는 다큐멘터리로는 드물게 지난 17일 관객 2천명을 돌파했다.

광주극장은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당초 19일까지 상영키로 했던 '우리학교'를 오는 5월 3일까지 매일 한차례씩 연장 상영한다.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가족 단위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광주 뿐 아니라 강진, 장흥, 장성 등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또 '우리학교'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학교' 잔잔한 인기



학교도 늘고 있다.

'우리학교'는 김명준 감독이 3년 5개월간 아이들, 선생님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일상을 예뻐이린 시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다.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여느 10대들과

다름없이 명랑하고 밝다. 영화에서는 일본이라는 타국땅에서 조선인이라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 메가폰

주목! 이영희 굿세퍼드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메가폰을 잡아 화제가 된 영화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첩보원들을 통해 비열한 시대의 모습을 해부한 작품이다.

CIA 요원 에드워드 윌슨 앞으로 어느날 소포가 하나 도착한다. 신원불명의 여자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와 흑백사진 한장. 에드워드는 부하들을 시켜 목소리와 사진 속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라고 말한다.

수년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에드워드는 첩보국의 일원이 되면서 점점 차가워지고 세상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맷 데이먼, 안젤리나 졸리 등 호화캐스팅이 눈에 띄며 로버트 드니로 역시 설리



반 장군 역으로 화면에 모습을 드러낸다.

2시간 40분이라는 다소 긴 러닝 타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지루할 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로버트 드 니로의 이른바 '냉전 3부작' 중 첫번째 편으로 드 니로는 이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전과 후를 나누어 두 편의 뒷 얘기를 제작할 예정이다. <18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위성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 60번, 나주 60번, 목포 59번, 담양 42번

영·혼을 사로잡는 힘

광주CBS TV

날마다 감탄하세요
은혜와 감동이 쏟아집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

광주CBS의 비전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TV강단 매일 새벽 5시 30분 ~ 6시

월 허태호 목사
(새희망교회)

화 송재식 목사
(광주서림교회)

수 박은식 목사
(광주서현교회)

목 윤세관 목사
(광주계림교회)

금 이길수 목사
(광주예향교회)

토 리준기 목사
(빛과사랑교회)

TV강단 매일 오후 3시 5분 ~ 3시 35분

월 주연도 목사
(광주동성교회)

화 최학후 목사
(기장 광주영림교회)

수 손송기 목사
(하남은광교회)

목 김성원 목사
(광주중흥교회)

금 이상복 목사
(광주동명교회)

토 백석식 목사
(광주도원교회)